



Anodizing COLOR PACK



RED

ORANGE

BLUE

PR0002 PR0005

- 적용차종 준중형, 중형, 대형
쏘나타, 제네시스 쿠페, K5, K7,
그랜저
- 적용차종 준중형, 중형, 대형
쏘나타, 제네시스 쿠페, K5, K7,
그랜저, TOYOTA 86

18 x 9J	114.3	15	67	9.76 kg
	114.3	30	67	9.47 kg
18 x 8J	100	35	56	8.69 kg
	114.3	35	67	8.64 kg

HANDS NEWS

VOL. 07
Spring, 2015

CONTENTS

HANDS STORY

06	HANDS NEWS	HANDS NEWS
14	리틀 핸드 소식	리틀 핸드 소식
20	핸즈 사랑 실천	핸즈 사랑 실천

HANDS PEOPLE

23	히든 핸드인	나의 하루를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열정'
30	청도동화	소통과 신뢰의 청도동화
32	핸즈 현장을 가다	우리가 책임진다 물류 특공대 '관리2반'
34	숨은 가족 찾기	출고 2반 임채순 사원, 품질관리 5반 김태현 사원
36	웰컴 투 핸드	신입사원 13기 소개
38	제안 포상	김익수 주임(F2롤러 재 사용건)

HANDS INFO

42	생활 외국어	주유하기
44	건강 플러스	맑고 시원하게 눈 지키기
46	노하우 플러스	봄철 맞이 옷장 정리 노하우
49	핸즈 교육 정보	
50	핸즈 도서관	
52	생생 핸드 맛집	부야스 곱창, 학운정
54	축하합니다	

발행일 2015년 4월(통권 007호)
발행인 승현창 회장
발행처 핸드코퍼레이션 BUD 홍보운영팀
편집장 이호성 이사
편집위원 김영식 과장
편집/디자인 이창민 대리, 김빛나리 사원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의미로 사람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야 통증이 없고 건강할 수 있다

2014년 한해는 세계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 하였으나 회사의 매출액이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2015년 역시도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국내외 시장 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달러와 엔화의 약세로 인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HANDS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퇴보할 경우에는 회사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HANDS인 모두의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장이라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지금의 상황을 타계하고 더 높은 성장이라는 열매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HANDS인 여러분

저는 줄곧 여러분에게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얻은 성과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라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에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의미로 사람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야 통증이 없고 건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통하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상대방과 통하지 않는다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합니다. 두명이 모여 한명의 시너지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HANDS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회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소통을 이룬다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HANDS인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저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낸 저력이 이번에도 필요합니다. 2015년은 하나되는 HANDS, ‘소통’을 통해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두 HANDS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 나 되 는

함 께 하 는

한 즈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제품’을
최적의 납기에 공급해 드립니다

● 장비명



CNC 선반 PUMA 280



MCT VM750L



7호 밀링 KMB-U7

그외 다수 장비보유



호빙 머신

● 제품명



기어 가공



대형 선반 가공



CNC선반과
머시닝센터를
이용한 가공



7호 밀링 가공부
대형기계 부속



인천광역시 서구 사림로 60 / TEL : 032-565-6525 / FAX : 032-565-6526

<http://www.duck-won.co.kr> / E-mail : juchang60@hanmail.net

HANDS STORY



06

HANDS NEWS

사회 공헌 협약식



08

HANDS NEWS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12

HANDS NEWS

엔조이 핸즈



14

LITTLE HANDS

재물잔치



16

LITTLE HANDS

세배하기



18

LITTLE HANDS

졸업식



20

Community Service

핸즈 사랑 실천

핸즈코퍼레이션, 인천 서구청과 저소득 가정 후원 MOU체결

2015년 1월 15일.

핸즈코퍼레이션과 인천 서구청은
인천 지역 저소득층 가정 물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업무협약 체결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핸드코퍼레이션의 체계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인천 서구청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협약식에서 인천 서구청의 강범석 시장은 “핸즈코퍼레이션과 인천 서구청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인천지역 소외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 뜻을 전했다.



이에 핸드코퍼레이션의 이석주 사장은 “앞으로 인천 소외계층의 물품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인천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희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핸드코퍼레이션은 매월 인천 내의 소외계층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김치, 휴지, 쌀, 라면, 보온용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공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핸즈코퍼레이션,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를 이끌다

2014년 KSF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테크니컬 스폰서 활동을 시작으로 자동차 문화의
큰 획을 이어가고 있는 핸즈에서 이번에는 직접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15'를 개최했다.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HANDS MOTORSPORT FESTIVAL

SEOUL MARINA club & Yacht



HANDS
MOTORSPORT FESTIVAL 2015

2015.02.26 PM 5:00 서울 마리나 2층 연회장





자동차 산업 중심에 우뚝 서다

모터스포츠 문화의 대중화와 확산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2015년 3월 28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그 서막을 알렸다. 8개월동안 총 6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일반인들도 레이싱 트랙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트랙데이’와 시즌 포인트제로 운영되는 ‘원 메이크 레이스’를 신설하였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 행사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핸즈는 대한민국 휠 산업은 물론 자동차 문화까지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번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에서 단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원 메이크 레이스이다.

스포츠 쿠페로 명성이 높은 토요타 86 차량으로만 구성 된 86 원 메이크 레이스와 작은 차체에 터보 엔진을 얹은 쉐보레 아베오 원 메이크 레이스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새로운 레이스를 경험하고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토요타 86 총 25대, 아베오 총 20대가 출전하여 쟁쟁한 레이스 실력을 겨뤘다. 그 결과 첫번째 경기에서는 스토머레이싱팀 김병찬 선수(토요타 86 원 메이크 레이스)와 개인으로 출전한 김대규 선수(아베오 원 메이크 레이스)가 우승을 차지했다. 앞으로 남은 레이싱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된다.



2015년 3월 28일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과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을 오가며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15. 국내 모터스포츠 환경에 새로운 활력소로 다가올 이번 행사에 우리 핸즈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핸즈 모터 스포츠 페스티벌 연간 스케줄표

구 분	일 정	장 소
1회	03월 28일 ~ 03월 29일	인제 스피디움 서킷
2회	05월 16일 ~ 05월 17일	인제 스피디움 서킷
3회	06월 27일 ~ 06월 28일	인제 스피디움 서킷
4회	08월 29일 ~ 08월 30일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5회	10월 10일 ~ 10월 11일	인제 스피디움 서킷
6회	11월 14일 ~ 11월 15일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문화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엔조이 핸드스코퍼레이션

2014년 12월 12일. 현장게시판에 서울랜드 입장권 판매 관련 게시물이 게시되었다.
Enjoy HANDS는 전에 없던 핸드스인들을 위한 복지제도이다.

현장게시판에 자동차 할인 판매 관련 게시물처럼 외부업체가 판매목적으로 게시된 게시물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랜드 게시물은 HANDS에서 제공하는 문화컨텐츠 중 한가지이다. 문화, 여가, 레저 등 다양한 혜택을 핸드스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한 핸드스인에게 쉼표같은 여유를 가지고자 Enjoy HANDS가 생겨나게 되었다. Enjoy HANDS는 현재까지 총 3회 진행되었다. 첫번째 게시된 사항은 서울랜드 할인이었다. 핸드스인과 그 가족들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두번째 게시된 사항은 문화컨텐츠였다. 인천에 소재한 인천예술회관에서 진행한 보로로의 드림콘서트, 친정엄마와 2박 3일, 김미경의 토크콘서트,

작업의 정석이었다. 첫번째 기획이 여가선용이었다면 두번째 기획은 문화공연으로 일하느라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세번째 기획은 여가선용이었습니다. 각종 여가선용 시설을 핸드스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앞으로도 Enjoy HANDS를 통해 핸드스인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NJOY HANDS

HANDS는 43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변화를 통해 성장해왔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지금은 HANDS와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핸드스인들은 2,000여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정도면 우리도 핸드스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치적 현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자부심의 초석을 Enjoy HANDS로 다져 '다내고 싶은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Q & A〉
- Q : Enjoy HANDS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 : 현장에 게시판에 게시되는 Enjoy HANDS에 참여방법이 게시됩니다.
- Q : Enjoy HANDS는 임직원 가족도 참여 가능한가요?

A : 네 HANDS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 가족 및 친척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 Enjoy HANDS의 향후 테마는?

A : 여행, 식당, 의류, 숙박시설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오는 제1회 리틀한즈 발표회



2015년 1월 한즈 사옥에서 리틀한즈 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아이들은 화려한 무대 의상과 함께 열심히 연습한 공연을 학부모들에게 선보였다. 우크렐라, 체조, 트위스트, 연극 태권무, 최신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발표회를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발표회를 방문한 학부모들은 귀엽고 깜찍한 리틀한즈 어린이들의 재롱이 펼쳐질 때마다 사랑의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연신 ‘아빠 미소’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답하는 한즈인들은 한 해 동안 예쁘게 성장 해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장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리틀한즈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리틀한즈 행사를 위해 리틀한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민족의 명절 설날이 리틀한즈 어린이집에도 찾아왔다. 한복이 아직은 낯선 소지반 어린이들도, 이제는 제법 의젓함을 보이는 엄지반 어린이들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배를 준비했다.



“두 손을 모아 머리에 올려주세요”
“무릎 앉기를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배꼽을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따라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원장선생님께 세배를 드렸다. 원장선생님은 한해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우리 어린이들에게 덕담 한마디씩을 전하며 미리 준비한 세뱃돈 봉투를 한명 한명에게 나누어주었고 우리 어린이들은 씩씩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세뱃돈 봉투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은 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몰래 봉투를 열어보기도 했다.
새해가 시작된 지금, 이번 해에도 과연 어떤 즐거운 일들이 리틀한즈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보며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제 1회 리틀핸즈 졸업식

엄마, 아빠 나 어린이집 졸업했어요

2월의 마지막 화요일.
제1회 리틀핸즈 어린이집 졸업식 날,
즐거운 학습의 터전이었던 리틀 핸즈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졸업식 행사가 열렸다.

리틀핸즈에서 건강하게 자라준 6명의 졸업생들을 보며 따뜻한 사랑과 미소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던 한유남 원장은 “리틀핸즈라는 공간에서 형, 누나로서 가장 의젓했던 너희들이 떠나서 많이 아쉽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해주길 바란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리틀핸즈 보육교사들도 정들었던 재롱둥이 아이들을 보내며 졸업식 내내 아쉬운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어린이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생활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학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추억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상을 보며 웃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도 모두 아쉬움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졸업식은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은 모두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했다. 졸업식 이후에는 졸업식을 참석한 가족끼리 포토 타임을 가졌고 개구쟁이 아이들은 졸업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흐뭇하게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2013년 10월 개원한 리틀핸즈 어린이집이 개원한지도 어느 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이 배출되기까지 아이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감싸준 리틀핸즈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오고 싶은 리틀핸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형, 졸업을 축하해”



2015년, 인천
서구, 동구에서의
사랑 실천 활동

START



함께 나누는 만큼 따뜻해지는 마음

인천 골목 곳곳 남색 핸드아웃을 입은 핸드인들이
들어섰다. 매월 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활동하는 이들의
따뜻한 얼굴에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핸드인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날을 보내고 있을때, 외로운 설날을 보내고 있는 조손 가정, 장애인 등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핸드가 나섰다. 곳은 날씨였지만 휴지, 쌀 등의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으며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반가운 도움의 손길이 고마웠던지 생필품을 전달하는 핸드인들을 보며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따뜻한 커피를 전하는 할머니를 보며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한 핸드인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날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한 BUD 박진성 과장은 “기쁜 설 연휴에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주변 이웃들을 직접 찾아뵙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핸드의 손길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핸드 사회 공헌 행사를 마쳤다.

2015년 핸드는 서구청과의 MOU 재체결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현했다. 사회 공헌 활동은 모든 핸드인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다. 앞으로도 핸드인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인천 지역 소외 계층의 행복을 바란다 .